

새로운 시대 '무등산' 새로 창작하다

이강하미술관, 작가 10명 작품 선별 허백련부터 청년세대까지 시대 관통

광주 남구 이강하미술관에서 '새로운 시대 창작의 무등산' 전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마련된다.

이번 전시는 (사)이강하기념사업회가 기획해 '2021 광주시 문화예술 민간단체지원사업'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콘텐츠 부분 공모에 선정된 전시다. 의재 허백련, 오승운, 이강하, 송필용, 조정대, 윤세영, 김명우, 정승원, 서영실, 조은솔 등 작가부터 허 시대 청년작가까지 무등산을 주제로 시대를 관통하는 총 10명의 작가 작품들을 접할 수 있다.

남도 예술가들의 눈과 마음에 담았던 무등산은 언제나 푸르고 에너지가 넘칠 뿐만 아니라, 형상 너머 감성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 '어머니의 산'이라 불린다. 강인하게 끊어질 듯 이어지는 부드러운 능선은 우리를 감싸며 더할 나위 없는 고유의 형상으로 하늘과 도시의 경계를 넘나든다.

수많은 시절과 시대를 창작으로 살아가는 예술가들이 매 순간 변화하는 강산의 풍경과 시대 속 마주하고 느꼈던 자연은 그들만의 예술적 관점을 관통해 또 다른 세대와 연결된 의미로 확대되어 작품으로 표현됐다.

시대별 예술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무등산을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직접적인 산의 형태가 아닌 '시대와 창작'이 큰 주제다.

전시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과거 예술가들의 무등산 ▲80년 오월의 광주정신과 무등산 ▲새로



조은솔 작 'The Intruder'



오승운 작 '풍수'

운 인간과 환경의 의미가 부여된 무등산이다.

과거의 무등산을 마주했던 작고 작가들의 약 1920년(작품 추정시기)부터 1990년대를 상징하는 의재 허백련, 오승운, 이강하의 작품을 찾았고, 다음 세대인 송필용, 조정대 작가의 작품이 '1980년 오월' 광주 정신과 시대를 담은 상징적 형상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최근 청년작가 세대들이 느끼는 무등산은 자연과 역사적 기록의 관점을 벗어난 새로움을 향한 창작적 물질과 다양한 시각예술의 결과물로 재해

석 되어진 작품들로 윤세영, 서영실, 김명우, 정승원, 조은솔 작가의 작품이 선보인다.

이강하미술관 이선 학예연구사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지역의 산, 자연, 환경의 대상이 어떻게 감각적인 조형적 언어로 표현되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시대와 세대가 기억하고 유한적 생명력을 지닌 관계와 예술의 의미로 공감하는 전시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국립광주박물관 선사 전시 새 단장

구석기부터 기원전·후까지 공간 개편 마무리

국립광주박물관이 새 단장한 역사문화실의 선사시대 전시 공간을 공개했다. 구석기시대부터 기원 전후의 초기철기시대까지에 해당하는 광주·전남의 문화재를 소개하는 공간이다. 더욱 높아진 관람객의 안목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낡은 선사시대 진열장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연출 기법도 완전히 바꾸었다.

우선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진열장은 길이 약 10m에 이르는 대형 독립장으로 제작해 석기와 뼈나 뿔로 만든 도구, 토기의 구성과 변화 모습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전시품, 재현품, 영상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 그동안 어렵다고 여겨진 구석기시대를 더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신석기시대 부분에서는 광주·전남의 대표적 조개더미(패총)가 있는 여수 안도, 경도, 광양 둔탁 등에서 찾은 기원전 5,000년~2,000년 전의 각종 낚시·채집 도구 및 생활도구, 사람의 뼈 등을 조명한 다. 깊은 바다 속으로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했던 생계 방식과, 그로 인해 얻은 외이 도골증 등의 병증 등을 소개해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했다.

국보인 화순 대곡리 청동기의 진열장은 정교한 청동기의 앞뒷면을 모두 감상할



화순 대곡리 청동거울과 청동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정교한 잔무늬거울이나 팔주령의 세밀한 무늬와 제작 방법에 대해 다룬 영상물도 설치했다.

광주 신창동유적에서 나온 현악기, 북, 나무칼 등 의례 활동과 관련된 유물들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신창동의 저습지에서 찾은 사람 뼈와 복원 모형도 공개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선사시대 전시공간 새 단장을 기념해 상설전시실 곳곳에 지정된 사진촬영구역(포토존)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는 관람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연수 기자

문화예술로 떠나는 세계여행

ACC 시민아카데미 4개 강좌 운영

문화예술 감성을 가득 채워줄 강좌가 시민 결을 잇달아 찾아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이 오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ACC 시민아카데미와 영상대면으로 하반기 'ACC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한다.

ACC는 각 분야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축하고 고독한 여행가 등 4개 강좌를 개설했다. 강연 위주에서 벗어나 작품 감상과 예술가와 이야기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고독한 여행가: 아시아 근대 문화를 일군 사람들' 강좌가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총 4차례 온라인으로 열린다. 20세기 아시아 근대 문화를 꽃피운 각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가들의 삶과 모험의 여정을 통해 아시아 근대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시간이다.

ACC가 마련한 지역아시아작가전 '진

애하는 빅 브라더: 다시는 결코 혼자일 수 없음에 대하여'와 연계한 강좌는 다음달 시민아카데미실에서 개최한다.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매주 화요일) 열리는 '공동체에 짐짓인 편: 아시아 영화 속 타자와 윤리의 문제' 강좌에 선 아시아 영화를 살펴본다. 영화 프로그래머, 평론가, 영화학과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화상으로 시민과 만난다.

국내 정상급 연주자의 라이브 연주와 해설이 있는 공연식 강연인 '라이브클래식'은 세계 여러 나라 도시의 바로크 음악을 찾아 떠난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당대의 음악가들이 음악적 뿌리를 두고 찬란하게 꽃 피웠던 예술의 도시 이야기와 바로크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을 선사한다.

수강신청은 ACC 누리집과 현장에서 할 수 있다. 수강료는 강좌별로 다르며 온라인 강좌는 무료 수강. /이연수 기자

17세 피아니스트의 '초절기교' 전곡 연주

임윤찬 전국투어 리사이틀, 내달 1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임윤찬(17)이 리스트 '초절기교(超絶技巧)' 전곡 연주 리사이틀로 오는 10월 1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임윤찬의 이번 독주회는 25일 통영 국제음악당을 시작으로 10월 광주, 성남, 대구, 서울 등 5개의 도시에서 전국투어로 이뤄지는 무대다.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최연소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그동안 '최연소' 타이틀로 수식되어져 왔다. 올해 예술의전당 교향악 축제에 최연소 협연자로 참여했던 그는 이번 독주회 역시 롯데콘서트홀 최연소 연주자이자 초절기교 연습

곡 전곡 연주를 최연소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로 기록되게 됐다.

임윤찬은 그동안 네 번의 리사이틀을 모두 전석 매진으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임윤찬 신드롬'을 이끌어 냈다. 우리 음악계에서 콩쿠르 우승이 아닌 공연만으로 음악계의 절대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은 경우는 흔치 않다.

음악팬들은 임윤찬의 남다른 음악성과 천재적인 면모에 맨 처음 환호를 보냈지만, 끈이어 요즘 보기 드문 그의 독특한 연주 스타일과 취향에 매료됐다. 스승 손민수가 임윤찬을 가르켜 '시간여행자'라고 일컫는 정도로 Old School(전통적인

학파)을 지향하는 그의 스타일은 현대의 많은 아티스트들로부터 스스로를 차별화한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은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으로, 휴식시간 없이 연주함으로써 공연자세를 하나의 커다란 스토리로 프로그래밍해 보여줄 예정이다.

초절기교 연습곡은 단순 연습곡이 아닌 리스트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피아노 작품이다. 작곡가 슈만이 '이 작품을 그대로 재현해 낼 수 있는 사람은 리스트 그 자신뿐일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극악의 난이도에 피아노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테크닉의 집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곡 연주가 되는 사례가 흔치 않으며 막상 무대 위



임윤찬

에 올려져도 연주의 완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기에, 열 일곱살 피아니스트의 선택에 음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연수 기자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2021 September 09

Vol.70

김태봉 광주시지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현장 목소리 반영 맞춤형 치안서비스 최선”

특별 초대석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 특집

신안 특산도 <상>

김태봉 광주시지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커버스토리

“현장 목소리 반영... 맞춤형 치안서비스 최선”

취임 3개월째...자치경찰제 안착 책임감·자신감 생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 1호 시책 주목 주민 참여·소통 활발 권위적 경찰상 탈색 계기 맞게 돼 장기적으로 자치·국가경찰 사무 담당 경찰조직 이원화해야

특별 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평범한 국민들과 위대한 변화를 이룩할 터”

'낮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국민의 목소리 차별없이 들어야 남구 예지지별리, 미래성장축기대... 주민 주거 환경도 개선 지방대 경쟁력 제고 시급...대선 공약은 실천 가능성에 방점

플루리기초의원탐방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

“주민들 가려움 끊어주는 속시원한 의원되겠다”

동 명칭·구역조정 등 생활밀착형 입법활동 두각 청소년지도사 등 자기개발 속 지역사회 소통 주목 공약 이행 광복·도시재생 등 현안사업 해결 주력

한국의 명장

맹화장 현담스님

조선 탕화 화맥 잇는 탕화장 천연석재 복원 위해 재료·기법 발굴 시대 반영에 로켓·핸드폰 그려넣어

가볼만한 곳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순수문학 이으며 전국 문학관 반열

한국 순수 서정시의 진수 문헌한자어에 '시문학' 원본, '남의문학' 초간본 등 전시

지역대학 위기, 해결방안은

광주·전남 대학 '학과 신설'로 위기 대응 전남대 140명 조선대 129명 등 정원 미달 학령인구 감소 원인...정원모집 미스매치 발생 광주·전남도 유관 기관 등 협의체 구성

이슈추적

커버스토리

“현장 목소리 반영... 맞춤형 치안서비스 최선”

취임 3개월째...자치경찰제 안착 책임감·자신감 생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 1호 시책 주목 주민 참여·소통 활발 권위적 경찰상 탈색 계기 맞게 돼 장기적으로 자치·국가경찰 사무 담당 경찰조직 이원화해야

팩트체크

GGM 신차 양산체제 돌입

GGM 광주로보모터스

GGM, '따끈한 신차' 출시 임박 현대차 위탁 생산 1000cc급 경형 SUV를 연말까지 4개월간 1만2천대 생산 목표

건강백서

홍어와 경옥고

시간의 미학

경제인 인터뷰

영원한 안식처로 떠나는 특별한 공간 '천지명례식당' 3,500평 규모 고급 호텔식장시설 원비 마음은 함께 나누고 힘은 일손 먼저 살린 배창숙 천지명례식당 대표

맛있는남도

순천 웃장국밥

깔끔하고 개운한 맛에 푸짐한 인심까지 돼지 찜지 머리 사용돼 깔끔 넉넉한 한 접시, 수육·순대 서비스로 즐겨 불거리 즐길 거리 가득 웃장 국밥 축제